

## 전라북도장애인배구협회 입장

전라북도 장애인배구협회는 대한장애인배구협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대한장애인배구협회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전북협회의 입장을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소속 지부와 각 팀의 선수들에게 알립니다.

(수신공문 첨부함)

- 공문발송:

2016년 5월2일(문서번호:전북장배2016-05-01(2016. 05. 02.)호

- 답변회신 :

2016년 5월27일(문서번호:대한장애인배구협회-337(2016.05.27)호

첫째. 감사사퇴 요구입니다.

**답변 : 협회 감사 사임(박광순감사 사퇴서 첨부)**

전북입장 : 2월29일자로 박광순감사가 사임서를 제출하였음에도 5월 현재까지 박광순감사와 이상혁감사에 관련된 내용은 총회자료나 홈페이지에 공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공개와 비공개가 구분되겠지만 투명한 협회 운영을 위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 2016년도 5월11일부터 개편된 홈페이지에는 5월27일까지 감사로 박광순, 이상혁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5월28일 오전삭제되었다.

둘째. 임원 총 사퇴와 지역을 안배한 임원구성입니다.

**답변 : 임원진 교체 및 구성과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는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다음 이사회와 총회때 지역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전북입장 : 전북협회는 대한장애인배구협회가 변화된 모습으로 묵은때를 털로 세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요구였습니다. 현 집행부로는 변화된 모습을 회원들에 보여줄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신만 더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셋째. 시·도지부에서 추천한 인사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요구입니다.

답변 : 현재 대한장애인 배구협회 한창주 전무이사가 위원장으로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대한장애인배구협회를 믿고진상조사과정을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며, 조사과정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전북입장 : 대한장애인배구협회를 믿을수 있을까요? 진상조사위원장이 한창주전무이사입니다. 중립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자는 진상조사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진상조사위원장이 중심에 있는 임원이라면 대한장애인배구협회가 더욱 신뢰를 잃어갈 것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를 지역을 안배한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전라북도장애인배구는 2016년 5월27일 메일을 통한 답변을 받고 5월28일 집행부 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정하겠습니다.

첫째. 전북 정읍단리와 풍이, 전북아리울, 전북누리 팀은 제22회 전국좌식배구선수권대회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제6회 전라북도지사기 전국좌식배구대회 생활체육대회로 개최 하겠습니다.

※ 추후 일정은 전북협회 집행부 및 이사회의를 통해 결정하겠습니다. 대한장애인배구협회가 장애인배구인들의 권익옹호와 지원에 중심이 되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부가 되길 기대합니다.

전라북도장애인배구협회 임원일동